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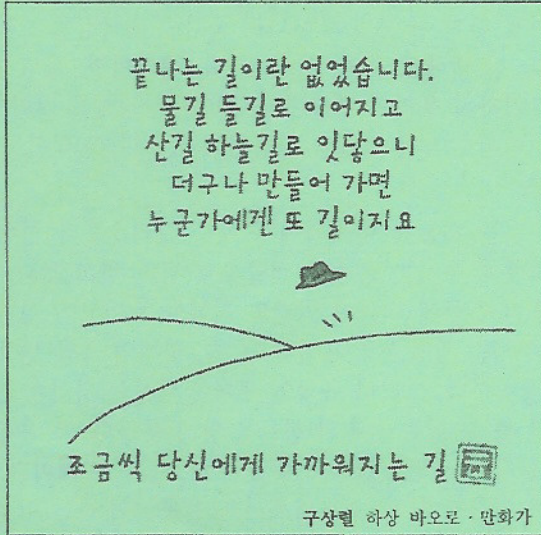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제28권 32호(가해) 2008.7.6

[묵상]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을까?
길은 무엇이 다닐 수 있게 나 있는 공간이다.
어떤 길이 있을까?
넓은 길, 좁은 길, 꼬부랑 길, 울퉁불퉁한 길,
험한 길, 편편한 길, 내리막 길, 오르막 길,
가파른 길, 돌길, 흙길, 잔디밭길, 아스팔트길,
콘크리트길, 진흙길, 흙탕물길, 논길, 밭길,
산길, 철길, 찻길, 보행길, 산책길, 오솔길,
물길, 뱃길, 비행길, 천당길, 황천길, 연옥길,
죽음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어떤 길이 되었던 저절로 나 있는 길은 없으니
모두가 사람이 닦은 길이다.
그래서 모든 길은 끝없이 서로 연결된다.
오늘은 김대건 안드레아 탁덕을 기리며
하늘에 이르는 길을 묵상한다.(하)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성 시간(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4째주)	종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오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생)고천웅과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엄은섭 도로테오와 도로테아 가정, 조지 가보라 성은혜 실비아 가정, 김풍길 바오로 가정
주일 낮 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정윤봉 베드로, 김인주 마카엘과 이달자 마리아, 황만근 베드로, 이인순, 최복덕 마리아,
	(생)이금순 마리아, 고천웅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김숙희 심포로사, 이인숙 베로니카, 정진세 시몬, 황철수 베드로, 황윤재, 오세덕,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엄은섭 도로테오와 혜은 도로테아 가정, 남가주 제28차 남녀 꾸르살로 수강자와 봉사자들, 칼란타와 현주 켈뚜르다 가정, 포드 스콜라스티카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24,18-22
화답송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내 바위 내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은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나는 주님만 믿습나이다. 자비하심에 기뻐 즐거워하나이다.◎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살려 주소서. 당신 얼굴 그느르심으로 사람들 음모에서 그들을 구하시나이다.◎
제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8	343
봉헌	409	108
성체	376	307,298
파견	339	336

15. 은총의 샘인 성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가
짐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
을 사용한다. 이런 수단과 방법들을 상징이라 한다. 예를 들면,
혼인 반지는 단순히 동그란 금붙이의 물건으로 보이지만,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과 헌신을 서약한다는 상징이며, 국기도 마찬가지로 단지 천 조각이 아니라 국가와 애국심을 드러내는 상징
이다. 이 밖에도 문자, 언어, 그림, 예의범절, 행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에서 수많은 상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종교에서도 많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매우 다양
하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에 대하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가르
쳐 주시는 말씀으로 표현한다. 즉,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
로 설명한다. 그러나 육적인 세계에 머무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
로만 볼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을 알지 못한다. 그 은총의 선물들
은 원래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던 하느님의 지혜이다. 그것은 세
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
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두신 지혜로서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이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
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신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여 우
리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1코린 2,7-14 참조)

▶ 성사(聖事, Sacrament)란 무엇인가?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
적인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과 은총의
선물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에게 신
앙을 심어 주고 신앙의 성숙을 돕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 주
기 위하여 우리 생활과 밀접한 표현과 사물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특별한 표징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내면에 깊이 들어오심을 체험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성사는
곧,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하고 하느님의 은
총을 전해 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의 계획”(에페 3,9)으로서 “때가 차면 하늘
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
데 모으는 계획”(에페 1,10)이며, “하느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에페 3,11)이
이제 사람의 눈에 계시된 것이다.

◆(계속-CBCK 제공)

피를 나누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피를 너무 흘려 살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아버지는 자신의 피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의 피가 'RH-'라는 흔하지 않은 피여서 아버지나 어머니와는 맞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마침 동생의 피가 형과 같아서 어린 동생의 몸에서 피를 뽑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준식아, 네 형이 죽어간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단다. 내 피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안타깝구나. 네가 형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면 형이 살아날 수 있단다." 한참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형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던 준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에게서 간호사는 피를 뽑았다. "이제 됐다. 일어나거라!" 안쓰럽게 바라보던 아버지의 말에도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일어나라니까!" "아빠, 나 언제 죽어?", "뭐야? 네 피를 형에게 주면 너는 죽고 형은 살아나는 줄 알았어?" "응." 그 대답에 기가 막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다.

"친구들(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사랑은 없다"(요한 15,13).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 피를 흘렸다. 사랑과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는 것을 순교(殉敎)라고 한다. 옛 교우들은 치명(致命)이라고 했는데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모두를 바치는 것이다. 몸과 맘, 재산과 명예, 자신의 재능과 장래의 멋진 계획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끼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삶과 활동을 기쁘게 바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이며 각오다. 그래서 순교는 사랑의 극치이며 가장 큰 삶의 표현이다. 순교는 신앙행위의 가장 높은 단계이고, 신앙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이만큼 크고 완벽한 것은 없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한다.

순교는 가장 큰 은혜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모여 무서운 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순교다. 마치 햇빛이 한 곳으로 모여면 뜨거운 열이 생기는 것처럼, 은총의 초점으로 이루어지는 순교는 언제나 장렬하고 우리에게 열렬한 신심을 일깨워 준다.

"이런 군란도 역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하고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나는 하느님을 위해 죽으니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할 것이다"(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옥중서한'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인을 기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게 기도하여,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성인의 말씀처럼 피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결단에 따라 맘을 흘리는 인내로 이웃과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에게 언약하셨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숙 클라라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래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4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오늘 주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그 분은 박해시대에 힘들게 공부하였습니다. 온갖 고초 끝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제품을 받았지만 불과 일 년 만에 순교합니다. 인간적 상황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따랐습니다. 그 분의 순교 정신을 묵상합니다.

- 매일 미사 중에서 -

◆ 지난 임기동안 봉사하신 사목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백삼위 한인성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새로 조직(주보6면 참조)됐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수고해주신 전례분과 부/차장, 청소년 부장, 주일학교장, 제단체임원진 및 소공동체 반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남가주 남성 제28차 푸르실로 수료자 환영 울뜨레아

- 오늘 주일(6일) 오후 7시30분 강당
- 수료자 : 최진수 에우세비오, 최재은 베드로 권진열 피데스,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본당 푸르실리스타들께서 많이 오셔서 새로 탄생한 백삼위 푸르실리스타들을 환영합니다.

◆ 백삼위 성모신심 특강

- 강사 : 최경용 신부(부산 구포본당 주임)
- 일시 : 7월7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전
- 대상 : 본당 전신자 및 타본당 신자

◆ 선택주말(CHOICE)을 위한 '참부모의 길'

- 일시 : 7월13일(주일) 오후 4시~10시, 백삼위 본당 강당
- 지도 : 최광경 비오 신부
- 참부모 담당부부 : 유토마스 & 데레사 ☎818-602-1811

◆ 굶주린 북한 동포 돕기 서명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남가주 사제협의회는 7월 월레모임에서 북한동포 돕기 남가주연대가 벌이고 있는 굶주린 북한동포 돕기 촉구 서명에 각본당별로 협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2년째 계속되는 홍수로 3백만명 이상이 아사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정부의 '대북 인도적 긴급 식량 20만톤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교우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용지는 오늘 주일(6일) 미사 후(토요특전 미사 포함) 성당입구와 친교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분과 제10차 홀리스 피플 돕기 행사

- 7월13일(주일) 오후 4시 이발봉사, 오후 6시 음식봉사
- 롱비치 무숙자 셀터
- 봉사를 원하는 분은 오후 4시까지 주방앞으로 와주세요. ☎ 310-283-5879

◆ 새임기(2008년 7월~2009년 6월) 사목위원 연수

- 일시 : 7월19일(토) 오후 7시~10시, 20일(주일) 오후 1시~5시
- 각 분과 부서장들을 연중 계획서를 7월15일(화)까지 총부 부나 사무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주일 학생미사(오전9시30분)는 그대로...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는 계속되고 있으니 학부모님은 자녀가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주말훈련

- 시간 : 매주 토/일 오전 6시부터
- 장소 : Pennsylvania Av. (PCH~256th St.)
- 누구나 환영, 걷기만해도 됩니다. ☎ 최현찬 안드레아 코치 938-0848, 김철만 요한 740-1502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6일 (주일) : 사회복지분과(햄&터키 샌드위치 \$3)
- 7월13일(주일) : 토런스 서1반(열무보리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국세찬	김광자	김대우	김 은	김찬구
	김태호	김택수	김현숙	박재철	박정희	박종열
	박희자	방정복	안동훈	안민수	엄세중	엄혜은
	오명섭	오세원	오수인	유선식	이기성	이용식
	임한나	정기은	정동호	정연영	정훈모	최귀환
	최기남	최원석	황인중	황지영		
	합계 : \$3,875					
미사헌금 : \$2,894			2차헌금(교황주일) : \$427			

성전헌금	구자운	국세찬	김광자	김대우	김찬구	김태호
	김택수	김현숙	박재철	박정희	박종열	박희자
	안동훈	엄세중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유선식
	이기성	이용식	임한나	정기은	정동호	정연영
	정훈모	최귀환	최기남	최원석	황인중	황지영
	합계 : \$3,235					
감사헌금 : 신순철						

이 주의 축일 (7월6일~7월12일)

축하합니다.

- 6일 : 로물로 주교, 트란킬리노 사제 순교자, 고들레바 순교자, 마리아 고레티 동정 순교자, 도미니카 동정 순교자, 섹스부르가 수절
- 7일 : 베네딕토 11세, 판테노 증거자, 팔라디오 주교, 에딜부르가동정녀
- 8일 : 아드리아노 3세 교황, 아놀드 증거자, 아렐라, 프리실라, 엘리사벳 왕후
- 9일 : 니콜라오 순교자, 아그리피노 주교, 에베릴다 동정녀, 베로니카 동정녀
- 10일 : 골비노 주교, 엠마누엘 순교자, 루피나 동정 순교자, 세쿰다 동정 순교자
- 11일 : 베네딕토 원장, 사비노 순교자, 히돌포 주교, 비오 1세 교황 순교자, 올라 수절, 아마빌리스 동정녀
- 12일 : 요한 팔베르토 증거자, 나볼 순교자, 펠릭스 순교자, 안스발도 원장, 헤르마고로 순교자, 마르치야나 동정 순교자

남가주 소식

◆ 남가주 레지오 협의회 22차 정기모임

- 일시 : 7월20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성 바실 회관 1층 회의실
- 의제 : 꼬미시움 설립 승인 신청서 제출의 건

◆ 제 17차 남가주 선택주말

- 일정 : 7월25일(금)~27일(주일)
- 지도신부 : 김두진 바오로(예수고난회)
- 참가대상 : 22세~35세 미혼 남녀
- 장소 : Marywood Retreat Center ☎ 714-713-0131

◆ 이나시오 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1일(금)~8일(금)
- 장소 : Mater Dolorosa(예수고난회 피정관)
- 지도 : 박종구 요셉 신부와 예수회원들
- 참가비 : \$800(독방, 숙식제공)
- 문의 : 정도로테아 ☎ 818-764-8950

◆ 2008년 제21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일시 : 8월23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24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LA Technical collage, Grand Theater
400 W. Washington Bl. LA
- 강사 : 전달수 신부(남가주사제협의회회장), 임연기 신부(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이태석 신부(살레시오수도회), 김두진 신부(예수고난회), 반병익 신부(성령쇄신봉사회지도)
- * 참가비 : \$25, ☎ 213-435-7570
- * 주관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최성자 카타리나 529-4337 7/11(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7/11(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7/19(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명순 크리스티나 619-7763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7/19(토) 오전 11시,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7/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박희자 마리아 791-3703
	3	강은진 켈마 214-2290	이현창 야고보 920-0944 7/11(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7/20(주일) 오전 11시, 델슨 팍
	3	거주지역반으로 배속 예정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7/13(주일) 오후 1시30분, 천교장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2반 합동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P.V. 구역 1,2,3,4반 합동 반모임 7/12(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P.V.합동 반모임
	3	윤은경 마카엘라 265-0856	P.V.합동 반모임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P.V. 합동 반모임

● 백삼위 한인성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조직표 ●
(2008년 7월~2009년 6월)

사무 평의회	
자문위원회	김정웅, 지경수, 정기은, 임종택, 유철희
법인이사회	임종택, 이재정
본당발전위원회	이경웅, 김대우, 김은, 문항업, 김종문
감사단	최영신, 이병권
당연직 위원	김종환(오세회), 이영희(안나회), 김찬구(양열회), 오해숙(성모회) 현석주(대건회), 장정진(자모회), 김병록(원서회), 최태훈(청년회)

주임신부	박상대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총회장	오세원
부회장	권태만, 윤희동, 최기남, 고규재
총무부장	김마틴
부총무	엄혜은, 이인두, 현석주, 박상진
본당사무장	홍석인

운영 위원회		
복음화분과	서병교	홍석철, 유근우, 정옥희, 한윤진
사회복지분과	박홍룡	오홍철, 김종렬, 차인수, 이정훈
소공동체분과	관순길	박혜경, 권병연, (구역장, 반장)
시설관리분과	한창주	김찬구, 서창호, 천광락, 서성웅
전례분과	김명숙	이인숙, 한애경, 유현화
조경분과	이명렬	권오상, 최현찬, 오진, 김양금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국세찬, 금영도, 정동호, 김유미
청소년분과	강인모	강혜원, 이혜레나, 김정심, 육재민
체육분과	김철민	정충로, 김주완, 김병록, 정치영
홍보분과	이재웅	송재훈, 김선재, 이진행, 천남숙

재무 평의회	
위원장	김병태
간사	배난군
위원	엄영숙, 오명섭, 권진열, 최경숙, 우영희 신덕례, 박희자, 오지희, 김학예, 김인자

전례연구위원회	김정웅(위원장), 김대우, 정기은, 배기열, 김명숙
전례봉사위원회	성혈봉사단, 전례봉사단, 봉성체봉사단
전례음악위원회	배기열(위원장), 김정화, 최릴, 서창호
H.P 관리위원회	이재웅(위원장), 서희준, 오태환, 오윤희

※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당발전과 하느님 나라 건설에 봉사하실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